

# 사계절 향기 나는 달빛소리수목원 개장

### 20년 가꿔... 익산시, 내달 2일 정식 개장 다정한 고목들과 수목들이 어우러져 장관 이뤄

익산시는 익산의 또 하나의 명소인 달빛소리수목원이 오는 6월 2일 지역 주민 입업인 산림 관계자 등 150명 정도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갖고 정식 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달빛소리수목원(대표 김지순)은 지난해 산림청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사업비 3억원(보조 1.8억원, 자부담 1.2억원)을 투입, 최근 향기 나

는 산림작물(금목서, 은목서, 납매) 생산단지를 조성 완료함에 따라 이날 오픈식을 갖고 정식 개장한다. 달빛소리수목원은 20여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연필향나무 등 1백여 종의 희귀한 고목들이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특히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향기 나는 나무(금목서, 은목서 등) 6백주에서 내뿜는 은은한 향

기가 사계절 내내 농원에 가득하다. 또한 다정한 고목들과 사계절 향기 나는 수목들로 가득한 이곳은 인생의 첫발을 아름답게 내딛을 수 있도록 아이예식장을 비롯한 돛 예식장 폐백실, 신부대기실, 산책로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금목서, 은목서 납매 향수가 5년 후부터는 직접 채취가 가능해져 토종 향수로 대체하게 되면 200억원 가량의 외화절감 효과는 물론 지역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빛소리수목원은 도시근교인 춘포면 천서길 149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장 후 1개월 동안 익산시민에 한하여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예식장 사용예약은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834-90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달빛소리수목원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힐링 공간 및 체험관광농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남북 체육 교류 생활스포츠 활성화”

### 정현을 시장 후보 “생활스포츠 명품도시 조성”



민중평화당 익산시시장 정현을 후보는 체육교류를 통한 남북평화의 교두보 역할과 동시에 익산을 생활스포츠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30일 발표했다. 익산시는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경제 교류와 함께 체육교류를 통한 평화 시대를 선도하고, 2018년에 열리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30만 시민의 생활스포츠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가 내놓은 생활스포츠 활성화 공약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 추진, 생활체육 복합스포츠 타운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유아를 비롯하여 전 세대에 걸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엘리트 체육인과 체육전공 졸업자를 강사와 지도자로 활용할 방침이다. 생활체육 강좌는 익산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일반인들도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국가식품클러스터, 집권여당의 힘으로 완성시킬 것”

### 김영배 익산시시장 후보 푸드파크 조성과 연계 100여만평 2단계 조속 추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시장 후보는 지난 29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윤태진이사장과 환담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우리시 최대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실장 출신인 윤태진 이사장은 김영배 후보에게 앞으로 시장이 되신다면 중앙정부와 민주당에 요청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특히 사업을 전담키로 추진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캠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농식품비즈니스센터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추진하라는 푸드파크(FOOD PARK)조성과 연계하여 100여만평의 2단계 추진을 청와대, 중앙정부, 전북도와 함께 공조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어느 때보다 중앙정부, 전북도와 강력히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시장 후보는 지난 29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조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유치의 활성화, 원료농산물공급체계구축, 우리시 농업과의 연계 등도 농식품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명실상부한 농식품산업의 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집권여당의 시장이 되면 청와대, 중앙정부, 전북도와 함께 공조하여 2단계추진과 기업유치 등을 빠르고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소수여당의 시장보다는 집권여당의 시장이 익산에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하수관로 점검

익산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를 대비하여 익산시 일원의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 우기철 이전까지 시내일원의 하수관로에 대한 기계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기상아변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에 대

비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준설원 12명과 준설차량 2대, CCTV 촬영 장비를 동원하여 준설을 실시하고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즉시 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에서 준설작업을

하는 만큼 차량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지만 신속한 작업을 통해 풍수해 대비 관로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 건물 앞에 비치되어있는 빗물받이나 집수정 뚜껑의 나뭇잎, 혹은 이물질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도로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금강역사영화제 첫 출범

### 군산시·서천군 공동으로... 협약 체결



군산시와 서천군은 30일 양 도시 간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최초의 역사영화제인 '제1회 금강역사영화제'의 개최를 알리는 출범식 행사를 열었다. '금강역사영화제'는 지난 2월 20일 양 시군이 영화제 공동 개최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상영작과 행사내용에 대한 본 모습을 상대하게 드러냈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영화제 개최를 통해 다양한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천군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양 도시 간 다양한 문화교류 활성화와 우호증진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해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할 전망이다.

15일 저녁 7시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에서 5개국 총 17편의 비경쟁작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15일 저녁 7시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에서 개막식에는 레드카펫 행사와 더불어 이승환 밴드 축하공연이

/군산=김정훈 기자

## 박종서 군산시시장 후보, 지엠 군산공장 성명서 발표

한국자엠 군산공장이 첫차 생산을 한 후 22년 만인 5월 31일 예정대로 문을 닫게 된다.



이런 가운데 박종서 민주당 후보는 한국자엠과 정부를 상대로 군산공장 회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박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지엠 발표대로 군산공장이 내일 문을 닫는다면 군산공장 정상화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은 군산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찌는 군산역사에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후보는 "오늘날 군산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

다"며 "아울러 군산공장 정상화를 약속했던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군산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산시민들께서 지역을 철저히 배제하고 한국자엠 군산공장을 회생양 삼아 참원과 부평공장을 살리는 데 동조했거나 묵인한 정치세력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런 세력에 맞서 군산공장은 물론 바닥으로 떨어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발표한 군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칼날에 빠진 군산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만큼 군산공장 재가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인재양성과, 금강노인복지관 급식 봉사활동

군산시 인재양성과(과장 고대성)는 30일 구암동에 위치한 금강노인복지관(관장 박희수)을 방문해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인재양성과장을 비롯한 직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관을 방문하신 25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께 식사배식을 해드려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급식봉사를 마친 직원들은 노인복지관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고대성 인재양성과장은 "정성을 담은 따뜻한 밥 한 끼를 어르신들이 즐겁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DreamHub GUNSAN | 군산시 GUNSAN CITY